

(MC)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한국워킹맘연구소 이화진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교사맘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교사맘들이 매우 궁금해 하는 <남의 손에 아이 잘 맡기는 노하우>입니다.

노하우를 전해주시실 분은 역시 워킹맘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님 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어서오세요”

(이수연)

“네~ 안녕하세요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MC)

오늘은 남의 손에 아이를 잘 맡기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구요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많은 교사맘들이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려면 일단은 남의 손에 아이를 맡겨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이사님은 지금 아이를 누가 봐주시나요?

(MC)

저는 친정 어머니가 봐주십니다.

(이수연)

친정 어머니가 봐주신다니 굉장히 행복하시겠네요.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으시겠지만요.

자, 남의 손에 아이를 맡기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MC)

우선 저 같이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봐주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구요  
또 베이비시터가 봐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남의 손에 아이를 맡기는 방법은

첫 번째 베이비시터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구요

두 번째는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께 맡기는 방법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베이비시터에게도 맡길 수 없고 양가 어머니께 맡길 수 없을 때 마지막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어린이집에 맡기는 거죠.

각각의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시터를 이용해서 아이를 키우면 일대일로 우리 아이를 봐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월급의 절반 이상이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나가야 할 만큼 돈이 많이 든다는 것과  
주변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힘들게 벌어서 베이비시터 돈 주고나면 남는 것도 없는데 그럴거면 뭐하러 일을 하니부터 시작해서  
누구집 베이비시터는 종일 애를 TV 앞에 앉혀 놓는다더라 누구 애는 운다고 때려서 병원에 까지  
갔다더라 등등 부정적인 소리가 많이 들려요.

(MC)

맞아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사실 무서워요.

(이수연)

네 하지만 좋은 분들도 참 많답니다.

선택은 누가하는거예요? 바로 부모가 하는 거죠. 이왕 베이비시터를 쓰기로 결정했으면 일단  
'우리 아이를 잘 봐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신뢰하셔야 되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베이비시터를 잘 뽑아야겠죠,

베이비시터를 잘 뽑으려면 먼저 집에 상주하는 입주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출퇴근을 하는  
출퇴근형으로 할건지를 정해야겠죠, 이걸 부부의 스타일이나 일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입주형은 24시간 아이를 돌봐준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족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것과

특히 아빠들이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은 입주형베이비시터를 쓰는데 남편이 집에서 옷을 다 벗고 사는 스타일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걸거예요. 사각 팬티만 입고 지내죠. 처음에는 베이비시터가 있으니까 조심한다고 옷을 입고 있었겠죠? 그게 남편에게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 였던거예요. 그렇다고 남편 편hal데로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면 베이비시터가 민망해하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했대요. 어차피 나이가 어머니뻘이니 남편은 이모님을 엄마라고 생각하고, 이모님은 막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자고 상황을 정리했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입주 베이비시터는 대부분 50대 이상의 육아 경험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초보 엄마들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여러집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내세워 비교를 하면서 불평 불만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입주형은 조선족 도우미가 많아서 신분이 확실치 않다거나 문화와 언어 등이 달라서 생기는 갈등 등이 있으므로 미리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출퇴근형베이비시터는 어느 정도 사생활이 보장되고 30대중후반의 젊은 사람도 구할 수 있지만 거의 살림은 하지 않고 아이만 돌보고 퇴근 시간이 되면 칼같이 퇴근을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야근이 잦거나 출장이 잦은 일을 가진 워킹맘들은 아무래도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아이 돌보기가 미숙한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베이비시터를 구하시려면, 먼저 입주형으로 할 것인지, 출퇴근형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시구요 다음으로 내가 원하는 베이비시터 스타일을 명확하게 정해놓아야합니다. 아이에게 많은 스킨십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주는 것인지,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만드는 것인지, 책을 많이 읽어주고 문화센터 등에 데리고 다니며 교육에 신경을 쓰는 것인지, 밖으로 많이 데리고 나가는 것이 좋은지 등에 따라 베이비시터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웬만하면 뽑자라고 생각했다 스타일이 전혀 맞지 않아 마음 고생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미리 자신이 생각하는 베이비시터의 스타일이나 기준을 정해놓고 업체에나 관련 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만원적도 주면 횡수에 상관없이 면접을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 면접을 볼 때는 혼자보다는 친정 엄마나 주변 어른 등과 함께 보는 것이 좋은데 본격적인 면접에 앞서 건강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의 기본 서류와 실거주지, 연락처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형베이비시터의 경우에는 하루 동안 살림을 맡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면접을 볼 때는 기본 인상 착의는 물론이거니와 집에 들어오자마자 손을 씻는지, 손톱은 기는지 등의 기본 용무부터 시간외 근무 등의 별도 조건이나 아이를 돌보는 방법, 아이와 가족의 특이한

성향 등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재 베이비시터를 쓰고는 있으나 바꾸고 싶다면 기존의 베이비시터가 쉬는 날을 이용해 면접을 하고 현재 베이비시터와의 차이점이나 장단점을 파악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MC)**

**베이비시터와는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적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베이비시터를 쓸 때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내 아이에게 해코지 할까 두려운 것이잖아요?**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왕이면 가족처럼 좋은 관계로 잘 지내는 것이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좋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 베이비시터에게 애를 맡기고 와서는 애 우유는 제대로 먹이고 있는지, 기저귀는 제때 제때 갈아주고 있는지, 방치하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불안해서 회사에 와서도 일이 손에 안잡힌다고 하소연을 하시곤 하는데 그래봤자 누구 손해예요? 바로 제 손해죠, 베이비시터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좋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불신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호칭이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아줌마 보다는 '선생님' '이모님' 등 친숙한 호칭으로 부르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부르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은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일일이 따라다니며 설명을 해주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잔소리 한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얼마 안 있어 죄송해요 애 엄마. 나 그냥 그만 할래요~ 소리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전에 아이에 대한 정보 예를 들면 아이의 성향이나 습관이나 라이프 스타일, 좋아하는 간식 등을 기록해서 전달하고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듯 하면 엄마표 생활 체크표를 만들어서 적게 한 다음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MC)**

**네 엄마들이 미리 알아야 할 사항들이 참 많네요.**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이수연)

마지막으로 많은 워킹맘들이 아이들 간식은 잘 챙기면서 의외로 일하시는 분 간식은 안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이렇게 사소한 것에 마음 상할 수도 있으므로 말이라도 이모님 좋아하시는 복숭아 사다놔오니 드시면서 쉬엄쉬엄 하세요~ 라고 말하고 생일이나 명절 때는 선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MC)

**네 베이비시터 고르는 방법부터 잘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아이를 맡기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은 방법이 바로 친정엄마나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는 방법이죠**

(이수연)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준다고 하면 저 같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나홀로 족은 부럽다고 얘기를 하지만 또 이분들의 얘기를 듣고 나면 나름대로 고민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이를 봐준다는 친정엄마나 시어머니께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넘죽 절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요즘 할머니들 사이에서 노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 하나로 손주 돌보기가 거론되고 있을 만큼 “나는 절대 애 못 봐주니 그런 줄 알아라” 하면서 자유 선언하시는 경우가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현재 아이를 육아하고 계시는 할머니들도 많이 만나는데요 이분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시더라고요.

친정 어머니에게 아이를 직접 맡겨보시니까 어떤 게 가장 좋으신가요?

(MC)

**내 혈육이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것과 야근을 하든 회식을 하든 그래도 눈치를 조금은 덜 받는다는 것 등이 좋은 것 같아요.**

(이수연)

반면에 안 좋은 점은 뭐예요?

(MC)

**다른 육아 방식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사소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리고 너무 아이를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 아이가 버릇이 없거나 독립심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수연)

네 맞습니다. 제가 워킹맘들 만나다 보면 거의 느끼는 것이 같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든 시어머니든 이왕 할머니에게 맡기기로 한 이상 잘 지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명심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할머니 육아법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MC)**

**아~ 마음을 비우는 거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수연)

네 너무 중요합니다. 욕심을 부리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거든요.

책 찾아보고, 베이비시터 과정 공부까지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할머니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 남편이나 나를 키웠던 옛날 그 방식 그대로 키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시대하고 안 맞는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면 아이들이 자다 놀래면 기흉환을 먹이라던지 하는 것들이 있죠. 그렇다고 함부로 “어머니 그거 아니거든요! 책 보세요~” 라는 식으로 지적질~!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그리고 제발 교육은 맡기지 마세요. 할머니들이 엄청 스트레스 받으시더라고요.

책 사다놓고 읽어주라고 한다던지, 문화센터 데리고 다니라든지 이런 것은

할머니에게 스트레스이므로 할머니에게는 보육 정도만 기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MC)**

**앗! 저도 뜨끔합니다.**

(이수연)

둘째는 할머니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것인데 사실 우리 같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애 보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인데 체력이 약한 할머니들에게 무리가 가는 것은 당연하죠. 우리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므로 미리 미리 알아서 영양제나 비타민을 사다 드리고 일년에 한번씩은 반드시 건강 검진을 시켜드리면서 건강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이건 저도 건너서 듣기 했는데 제가 아는 분의 친구분 친정 어머니가 아이 둘을 키우시다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애들 키우다 이렇게 됐다” 그러셨다고 해요.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므로 후회하지 말고 반드시 건강을 챙겨드려야 합니다.

(MC)

**아 참 가슴아픈 얘기인데요 저도 친정 어머니 건강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다음 노하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수연)

세 번째는 할머니의 삶을 인정해드리는 겁니다. 할머니도 우리 처럼 할머니 만의 삶이 있죠. 친구 모임도 있고 취미 생활도 있고. 근데 무조건 아이만 보라면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병나요. 그러므로 급한 일 아니고서는 주말에도 할머니에게 자유 시간을 주고 평일에도 할머니가 중요한 약속이 생길 것을 대비해 시간제 베이비시터나 놀이방 등 대안을 마련해두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할머니의 안부를 먼저 챙기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완이 오늘 잘 놀았어요?” 라며 아이부터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은근히 마음 상해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므로 들어오자마자 “어머니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볼 테니 얼른 쉬세요!” 하면서 할머니의 안부부터 챙기고 늘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친정 엄마에게 말한다면 남편이 중간 중간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옆구리를 찌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MC)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친정 엄마가 봐주셔서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고맙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아예 집에도 잘 안오니.. 좀 속상하더라구요.**

**친정 부모님도 속상해하시는 것 같구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수연)

남자들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은 엄마에게 전화 한 통화 하면 어떨까? 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구요 아니면 함께 친정 집에 방문했을 때 먹을 것을 친정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사가지고 가서는 남편이 일부로 엄마 좋아하는 것으로 사왔다고 얘기하면서 사위에게 부모님이 서운해하지 않도록 얘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완 아빠가 엄마 복숭아 좋아한다고 복숭아 사서 가져왔어요” 식으로요.

(MC)

**네 저도 남편에게 직접 얘기해봐야겠습니다.**

(이수연)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공짜는 없죠.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육아비를 주셔야 하는데요  
집집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70~80만원 선이 많기 하더라고요. 물론 100만원 넘는 경우도  
많구요 그러므로 그건 사전에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와 의논해서 금액을 책정한 뒤 반드시 정해진  
날짜에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때도 바로 통장에 넣기 보다는 매달 감사의 편지와 함께 봉투에 담아서 전달을 하면 주는  
기쁨과 받는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MC)**

**마지막으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기 부담스럽거나 친정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줄 수 없는  
워킹맘은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겠죠.**

(이수연)

네 저 또한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는 것도 일찍 사회성을 키우고 규칙 규율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365일 콧물을 달고살거나 잔병 치레를 많이 하죠. 또한 언론을 통해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하게 되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숨지는 경우도 있고, 매를 맞는거나 썩은 찢술이나  
상추 식단처럼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그러다보니어린이집에 애를 보내는 엄마들은  
아이가 아파할 때마다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핸드폰에 어린이집 번호만 떠도  
가슴이 철렁 내려 앉곤 하죠. 어찌됐든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기로 마음을 결정했다면 잘  
고르셔야겠죠.

특히 3개월 출산 휴가 끝나고 바로 어린이집에 맡기는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MC)**

**어린이집 잘 고르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이수연)

먼저 입소문이 난 곳 위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 같은 워킹맘들은 엄마들과 교류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인터넷에 집 주변 어린이집 어디가 좋은가요? 라고  
 물어보던지 주말마다 놀이터에 나가서 보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를 둔 엄마들이 꼭 있어요.

그런 엄마들하고 좀 친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의외로 알짜배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은 참조만 하되 반드시 직접 방문



해서 필요한 사항을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직접 방문해서 상담한다고 해도 꼭 놓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미리 교사 대 아이의 비율, 청결상태, 식사, 시간대, 안전한 놀이시설, 프로그램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꼼꼼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확인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렇다고 시에서 점검 나온양수첩보면서 일일이 체크하면서 다니시면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뽑은 진상 학부모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대놓고 그러시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MC)**

**맞아요 너무 간간하면 선생님들이 싫어할까봐 걱정되긴 해요.**

(이수연)

그럼요. 뭐든 적당히~

세 번째는 만약 마음에 드는 어린이집을 1~2군데로 좁혔다면 시간대별로 다르게 방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오전에 갔다면 다음에는 점심 이후에 가고 마지막에는 하원길에 간다던지 이렇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아이와 함께 가보시는 것이 좋은데 신기하게 엄마가 보기에는 비슷한 환경인 것 같은데 어떤 곳은 아이가 빨리 나가고 싶어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계속 놀고 싶어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아이를 데리고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MC)**

**어린이집 고르는 것도 다 노하우가 있네요.**

(이수연)

그럼요! 마지막으로 베이비시터와 말기는 것과 아이에 대한 정보는 미리 작성해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 서로 병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비타민이나 영양제 등을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아무 말도 안하고 있다 갑자기 어린이집에 보내면 아이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다니기 전에 반드시 얘기를 해주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MC)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과 싫어하는 말을 준비하셨다고요

(이수연)

네 저희 한국워킹맘연구소에서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직접 여쭙본 내용입니다.

(MC)

네 정말 유용한 팁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좋아하는 말 베스트 파이브입니다.

자 5위부터 한 번 볼까요?

.....

대망의 1위는 바로 저는 선생님을 믿어요! 네요

역시.. 선생님을 믿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직접 표현해보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이제는, 싫어하는 말 베이스 파이브도 알아볼까요?

5위는.....

1위는 바로 "다른 어린이집은 이렇게 안한다는데.." 아~ 역시 비교의 말이네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말과, 싫어하는 말만 제대로 알아 놓으셔도 인기만점 학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이수연 소장님 감사합니다.